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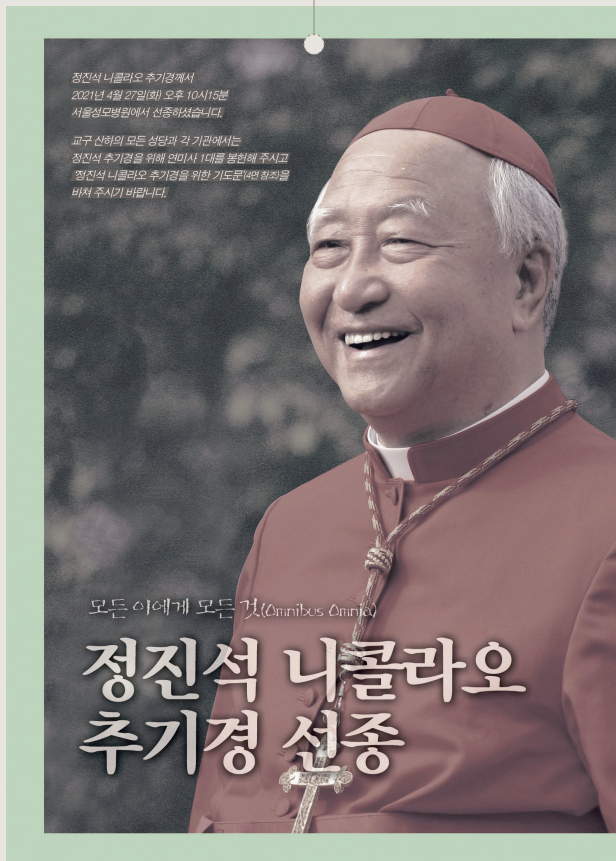
서울주보는 교회의 기록지, 계속 진화해야 한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월 27일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이에 서울주보는 5월 2일 자에 맞춰 정진석 추기경님 선종 관련 특별 보도판(특보)을 발행했습니다. 이 특보는 보통 교회 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교황님 선종, 새 교황님 선출, 교황님 방한, 새로운 우리나라 추기경 임명, 교구장 선종, 교구 재무제표 공개 등 교회에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자료와 사진들을 편집하여 발행합니다. 서울주보의 특보가 발행되면 그만큼 특보가 다룬 그 사건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주보 특보의 위상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 때였습니다. 서울주보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특보를



지속적으로 발행했는데, 이때 몇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시 교황청 대변인이셨던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의 글을 서울주보 특보에 실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글을 쓰기 위해 각종 언론들이 무척 많은 시도를 했을 텐데, 처음으로 글을 받아서 실은 매체는 서울주보 특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교황청에서도 서울주보에 믿음과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주보 특보에 실렸던 염수정 추기경님의 글을 모 유명 일간지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실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여태까지도 유일무이한 예일 것입니다.

2014년 교황 방한 서울주보 특보에 게재된 글
왼쪽 롬바르디 신부님 글, 오른쪽 염 추기경님 글

